

AI Enters Reality:

CES 2026 Insight

sk증권 박제민, 권민규



Contents



01 CES 2026 핵심 정리

3p

02 Enterprise AI, 확산 직전

12p

03 XR/공간컴퓨팅 & 가전/TV 그리고 중국의 기술 자신감 부각

23p

박제민
해외주식
jeminwa@sks.co.kr

권민규
IT중소형/디스플레이
mk.kwon@sks.co.kr

1. CES 2026 핵심 정리



CES 2026 변화와 핵심 메시지

	CES 2024	CES 2025	CES 2026
핵심 메시지	AI Everywhere, AI as a Platform Shift	"Dive in" Connect, Solve, Discover	Innovators Show Up
메시지 의미	AI가 하나의 섹터가 아닌 모든 섹터의 기반 AI를 기본 전제로 재정의 생성형 AI, 온디바이스 AI 개념 강조	AI의 "Dive in(몰입)" 강조 직접 경험하고, 참여하는 액션 중심(관람형 > 참여형) AI 기술 구현 뿐 아니라 수익화(Monetization) 경쟁 본격화	AI기능의 <u>실제 구현 및 증명(Show Up)</u> 을 강조 Agentic, Physical AI를 구현하는 인프라 및 수단(로봇 등) 대거 등장 AI와 로봇이 더 이상 실험적 기능 아닌 체화 가능한 수준까지 도달
핵심 쟁점	AI는 어디에나 적용할 수 있고, 근간 기술이 됨을 강조(범용화)	AI의 적용처 구체화 및 확장성 강조 수익성에 대한 논의 본격화 → AI 경험을 고객에게 어떻게 체험시킬 것인지, 체험에 중점	AI 기능의 구현에 초점. 어디까지 구현 가능하며 어떻게 쓰이는가? → 더 이상 체험이 아닌, 상용화의 영역으로 진입 AI가 어떻게 사용자와 능동적으로 상호작용하는가?
주요 Topic	모든 산업에 적용되는 AI(Connectivity) 모빌리티 지속가능성(자원, 기후) 푸드테크	AI 모빌리티 디지털 헬스	AI (Physical, Agentic) 로보틱스 모빌리티 디지털 헬스케어 양자

AI의 구현 = 실제 세계와 상호작용 하는 단계

- 1) 수동적인 챗봇이 아닌, 능동적으로 제안·계획 하고 실행하는 Agentic AI
- 2) AI가 물리적 실재를 갖추고 상호작용하는 Physical AI
- 3) 더 방대해진 양의 데이터를 추론 및 학습 가능하게 하는 인프라 변화 및 AI 모델 공개
- 4) 기업들은 로보틱스, 모빌리티, AI Home, 디지털 헬스케어로 구현

CES 2026 변화와 핵심 메시지

로보틱스가 주목받은 이유

- AI는 더 이상 모델 크기나 지표가 아닌, AI의 실용성(무엇을 할 수 있는지, 시스템과 어떻게 통합이 가능한지)로 논의됨
- Agentic AI(스스로 계획, 인지) + Physical AI(실제 사물과 상호작용) 구현을 가장 빨리 확인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은 로봇
- 전시, 개념 시연 등에 초점을 맞춘 25년과 달리, 올해는 특정 시나리오에서 명확한 목표를 가지고 행동하는 실용적인 기능 강조
- Nvidia의 GROOT, Cosmos, Alpamayo 공개, 퀄컴의 휴머노이드용 프로세서 공개 등 구현 기반 마련 + 실질적인 협력 기업들의 제품 공개가 로보틱스 시대 개막의 개연성 제공(현대차, 중국은 생산 목표도 공개)
- 한국은 가정용/제조현장용 휴머노이드 vs 중국은 물량공세와 가격 우위, 역동적 휴머노이드 vs 미국은 중장비 현장 투입 로봇

현대차의 범용 로봇 '아틀라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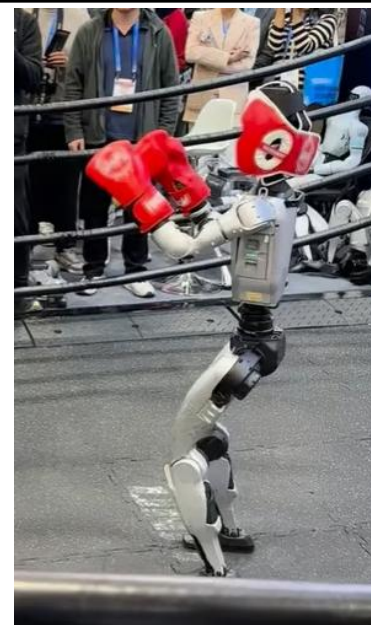
자료 : 현대차, SK증권

LG전자의 가정용 로봇 '클로이드'



자료 : LG전자, SK증권

유니트리의 범용 로봇 'G1'



자료 : Nvidia, SK증권

1. 신규 인프라 Vera Rubin 라인업 공개

- 1) 준수한 성장폭의 스펙 확정 2) 생산 풀 가동(Full Production) 언급. 2H26부터 도입, 9개월 수준 리드타임 언급
- 주요 변화: 6개 칩 모두 진보하는 Extreme Co-design, Tray 구조 개선으로 생산 효율화, NVFP4 강화로 훈련 적용 가능
- LLM 기준 현재는 아직 Hopper Pre-train 시대. 스펙 개선은 Agent, Physical AI 도입 시기를 앞당기고 경제성 확보 전망

2. 자율 주행도 엔비디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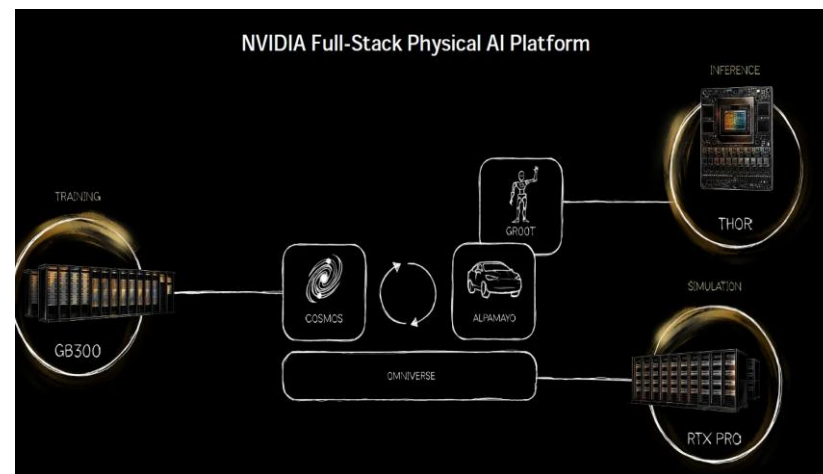
- Alpamayo 공개, 벤츠 차량 탑재 1Q26 미국, 2Q26 유럽, 2H26 아시아에 해당 차량 인도될 예정
- Cosmos 업데이트 1) Reasoning 기능 추가, 판단 근거 설명 가능 2) 합성 데이터 제공하며 Tesla 해자 상쇄
- Physical AI 분야 오픈소스 리드하며 Blackwell(훈련), RTX(시뮬레이션), Thor(추론) 3가지 칩의 장악력을 늘리겠다는 전략

Transistor 증가 대비 성능 개선 폭 월등 (1.7X vs 5X)

NVIDIA Vera Rubin NVL72

NVFP4 Inference	3.6 EFLOPS	5X Blackwell
NVFP4 Training	2.5 EFLOPS	3.5X
LPDDR5X Capacity	54 TB	3X
HBM Capacity	20.7 TB	1.5X
HBM4 Bandwidth	1.6 PB/s	2.8X
Scale-Up Bandwidth	260 TB/s	2X
Transistors	220 Trillion	1.7X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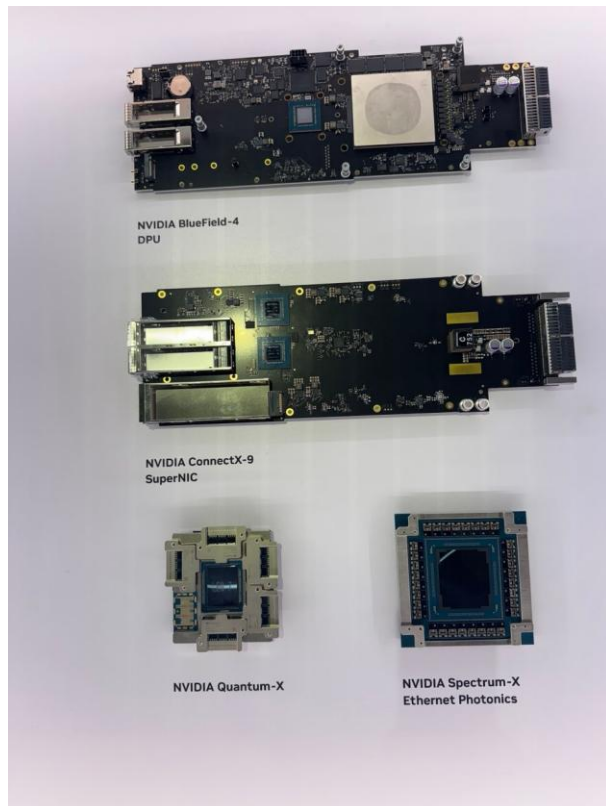
오픈소스 모델 공급으로 3가지 칩 판매 기회를 확보하는 엔비디아



Chapter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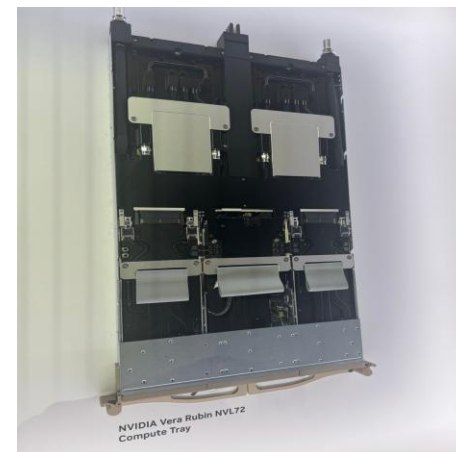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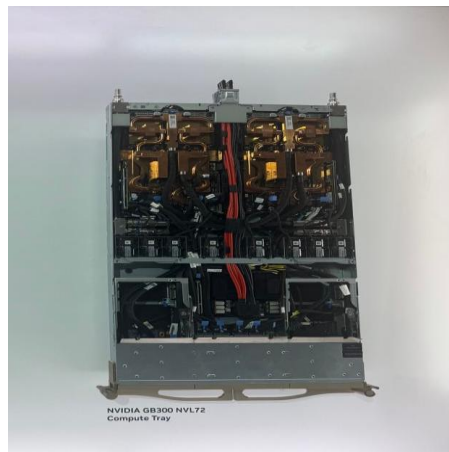
CES 에서 본 Vera Rubin

Vera/Rubin외의 신규 출시 4종 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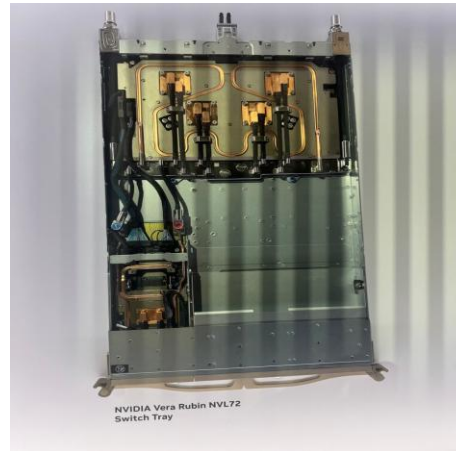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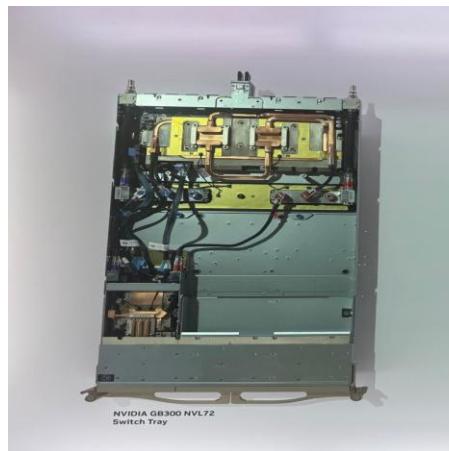
자료 : SK증권

GB300 vs VR200 Compute Tray: 케이블 감소로 생산 시간 2시간 > 5분



자료 : SK증권

GB300 vs VR200 Switch Tray 비교: 케이블 수 및 복잡도 감소



자료 : SK증권

NVL576을 향해 가는 Kyber 아키텍처

- 1) 수직 배치 2) 800V DC 전력망 도입 3) 케이블리스 미드프레임 적용 예정. 2027년 Rubin Ultra부터 적용 전망
- 한 랙 내에 Tray(Blade) 구조가 10-9-8 개에서 18-18-18-18 구조로 전환, 스위치는 뒷면에 배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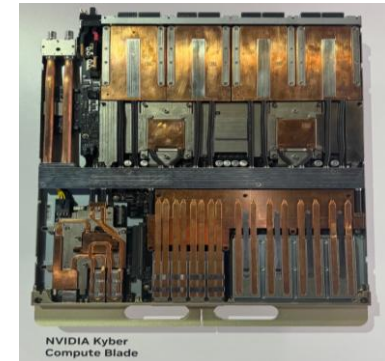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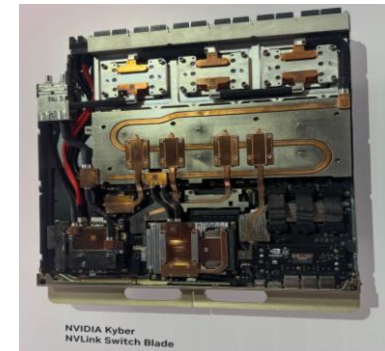
Oberon 아키텍처(NVL72) 앞면(좌), 뒷면(우)



Kyber 아키텍처(NVL576) 앞면(좌), 뒷면(우)



Kyber Compute Tray


 자료 : SK증권
 Kyber Switch Tray


1. Compute: Training → Inferencing

- Test-time scaling, Reinforcement Learning 도입으로 추론 컴퓨팅의 사용 비중 급증

2. Infra: Rack Scale Infra 소개 → Extreme Co-design

- Scale Up 개념을 소개하는 수준에서 Scale Across, 모든 칩들의 업그레이드를 통해 컴퓨트 수요를 맞추는 단계로 진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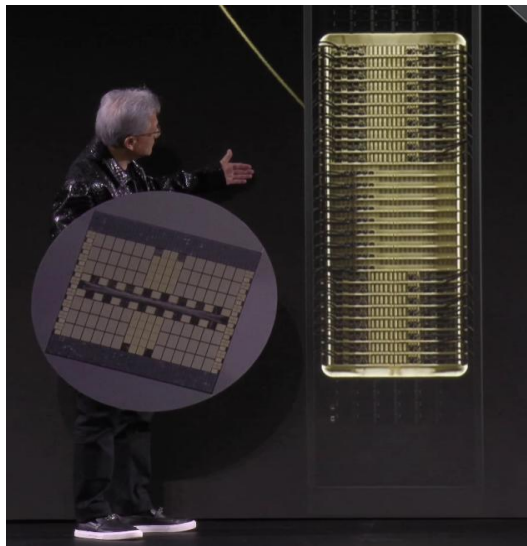
3. Agentic AI: 툴 제공 단계 → 부품 제공 단계로 진화

- Agentic AI 도입을 위해 필요한 툴(NIM, Nemo) 제시, 올해는 오픈소스 모델까지 상위 수준으로 마련된 상태

4. Physical AI: Cosmos, Omniverse 공개, 기술적 토대 마련 → 적용 가능한 수준의 Alpamayo 모델 공개

- 1년사이 Cosmos 모델 2회 업데이트, Reasoning 도입으로 자율 주행 모델 정립 성공, 상용화 직전 단계
- CES 전시장에 Nvidia 모델을 활용한 로봇(현대, LG, Unitree) 다수, 모두 이전 대비 물리 엔진 성능 비약적 상승

2025: 방패 소품을 이용해 '하나의 칩' 개념 설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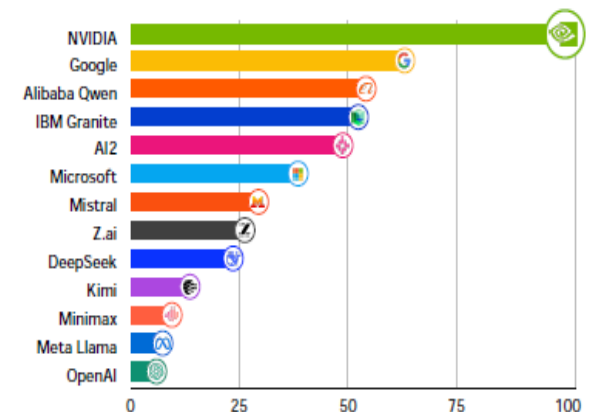
자료 : Nvidia, SK증권

2025 Agentic AI를 위한 NIM, Nemo 개념 도입 vs 2026 활용 모델 제공



자료 : Nvidia, SK증권

Language Models Released in 2025



* CES 2026의 Opening Keynote로 CTA 회장이 참석하는 해당 해의 핵심 발표. 작년 오프닝 기업은 Nvidia

1. 최초 인프라 라인 Helios 공개

MI455X 칩 공개, 기존 355 칩 대비 성능 70% 증가. 해당 칩이 포함된 랙 스케일 플랫폼 Helios 공개. 2H26 공급 예정
같은 기간 공급 예정인 VR200 NVL72 대비 전반적 성능 열위, 제공 메모리 우위가 메모리 가격 상승으로 부담 가중될 전망

2. 다수 고객사 소개, 그러나 임팩트 부족

1) OpenAI: CEO 브록먼 직접 등장하여 제품 설계부터 AMD와 긴밀히 협업 중으로 설명, Helios 적극 도입 의지 확인 2) LumaAI: 비디오 생성 모델, 워크로드의 60% AMD 칩 활용 2) World Labs: 3D 공간 구현 스타트업. MI325X 기반 구동 4) Absci: AMD 칩 활용 약물 스크리닝 5) illumina: AMD 칩 활용 유전체 분석 6) Generativ Bionics: AMD 임베디드 휴머노이드
OpenAI 외 업계 내 입지가 크지 않다고 판단. Nvidia GPU 또는 TPU를 활용하지 못하는 기업 중에서 선별했다는 인상

성능 비교: AMD Helios vs NVidia VR200 NVL72

OpenAI President Greg Brockman 방문, AMD 활용 의지 피력

	Helios MI455X	VR200 NVL72
FP4 (ExaFLOPs)	2.9	3.6
FP8 (ExaFLOPs)	1.4	1.26
메모리 대역폭(TB/s)	20	22
메모리 용량 (TB)	31	20.7
Scale Up (TB/s)	3.6 (UALink)	3.6 (NVLink)
Scale Out (G)	800	1,600



* CES 2026 최대 규모 스피치로 스피어에서 Keynote 진행, CTA 회장 참석

1. 개인용 AI Agent QIRA 및 각종 디바이스 제시

- 운영 체제 기반의 AI, Microsoft 시스템에 탑재되는 Copilot과 Layer 유사. 직접 앱을 실행하는 Agent 역할도 수행
- 사용자의 언어, 습관, 메모리를 학습, 모든 레노버 및 모토로라 기기에서 동일한 경험을 제공. QIRA 적용 노트북, 스마트폰 출시
- 정보 수집 강화를 위해 안경, 펜던트 등의 신규 디바이스까지 출시. 저조했던 온디바이스 AI에 변화를 불러올 수 있을지 기대

2. Hybrid AI 개념 제시, Enterprise 최적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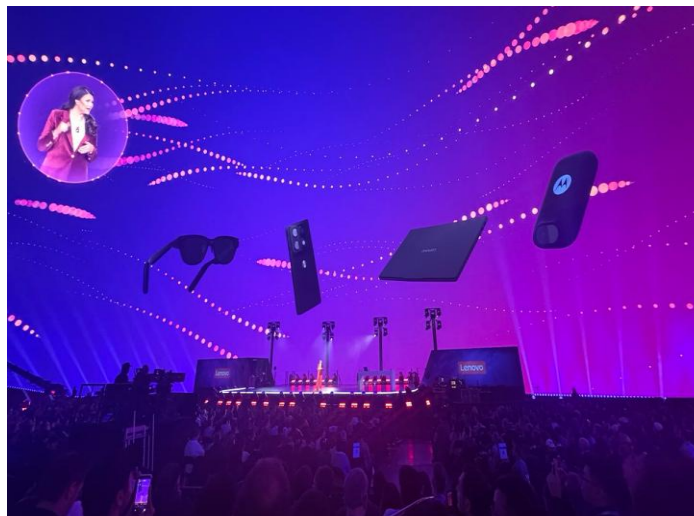
- Hybrid Cloud 개념에서 착안한 Hybrid AI 개념 제시. Edge, Enterprise(On-premise), Cloud 모두를 포괄하는 AI 제시
- 엔비디아, AMD 모두와 파트너십. 성공 여부는 QIRA를 통해 모으는 데이터 수준과 커스터마이징 능력이 좌우할 것으로 전망

Lenovo의 시스템 AI QIR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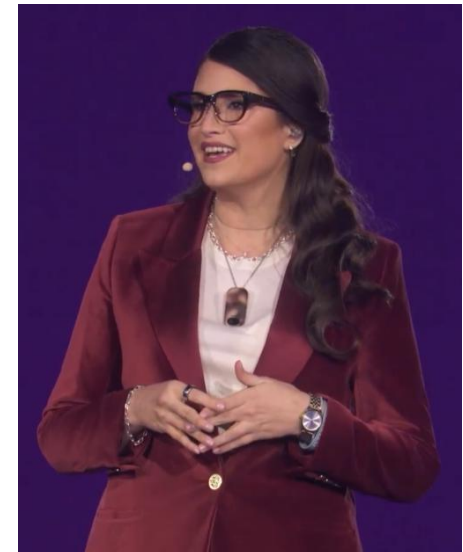
자료 : SK증권

사용자 데이터 수집을 위해 하드웨어 라인업 확대



자료 : SK증권

AI 안경, 펜던트 실착 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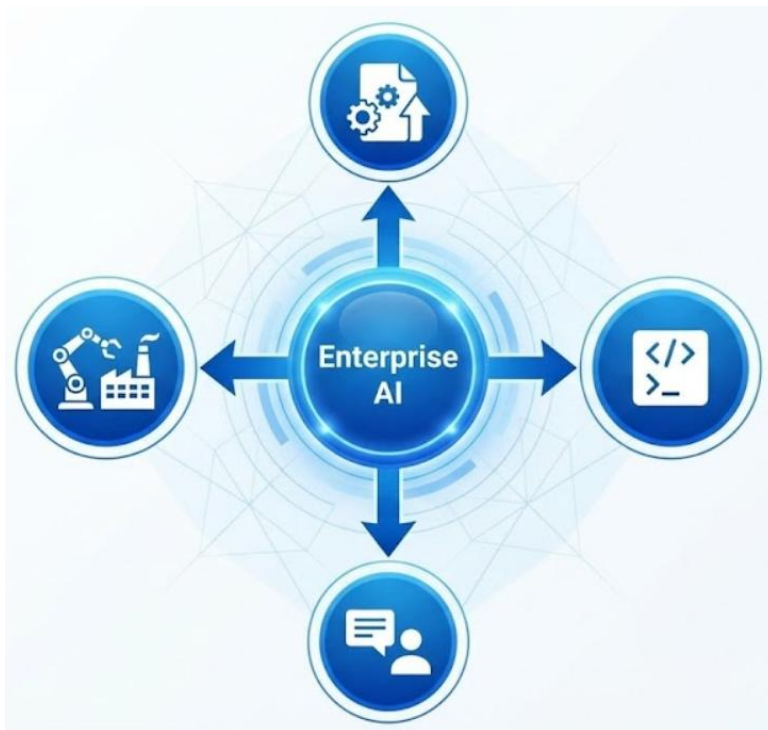
자료 : AMD, SK증권

Enterprise AI, 확산 직전



기업에 AI를 통합하여, 반복 가능한 워크플로우를 자동화

- 고성능 AI 모델과 함께 1) 조직 컨텍스트 2) 신뢰성 및 보안 등에 관한 기업 노력 필요



운영 부서 (Back office)

모든 기업에 공통적으로 존재

문서 검색·요약, 정책 QA, 재무/회계 분석, HR, IT 헬프데스크 등

처리시간 단축, 품질 표준화, 리스크 감소

개발자 플랫폼 (Developer)

코딩, 테스트, 리팩토링, 내부 툴 개발, 데이터 파이프라인 자동화 등에 필요한 시간 축소

현재 선두 모델사들이 가장 큰 시장으로 주목

고객 접점(Front-office)

인앱 어시스턴트/서치, 고객지원, 개인화, 상담 전환율, CS 개선 및 운영비 절감 목표

제조 자동화(Operation)

CES2026는 Enterprise AI 분야에 로봇 포함 넓은 범주의 Op-AI는 Physical AI를 포함 공장, 물류, 설비 효율 증가 및 자동화 목표

Chapter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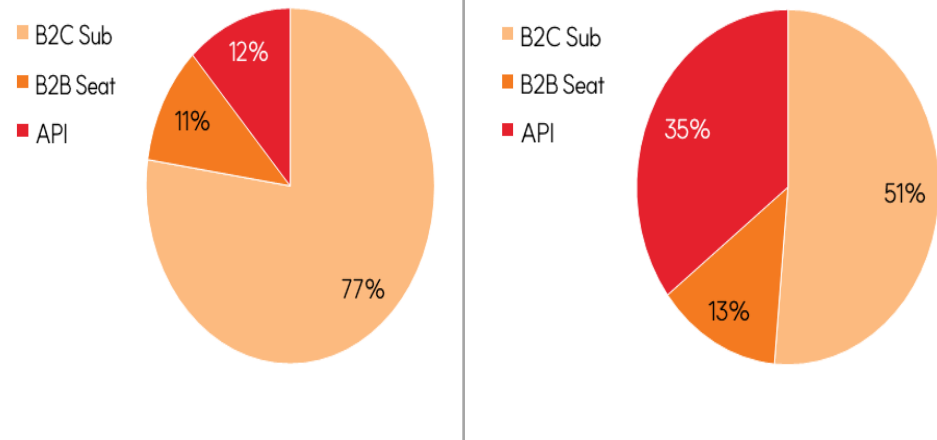
Enterprise AI가 중요한 이유

- 현재 AI 전방 중 가장 빠르게 성장, 가장 많은 기대를 받는 Adopter 영역
- 2H25 Frontier LLM 업체 API 매출 급증. 선두 Anthropic과 OpenAI 모두 ARR \$5B 이상 증가하며 수요 확인
- OpenAI ARR에서 API 사업부 차지 비중 6월 12% → 12월 35%로 급증, 매출액 \$1.1B → \$7.6B 급증한 것으로 추정
- 핵심 Enterprise AI 업체 Palantir 2025E 매출 +53% YoY 성장 전망
- AI 버블 우려의 본질은 '기대 비용 > 기대 매출'. Enterprise AI는 이를 해결할 수 있는 핵심
- ChatGPT를 포함한 Consumer AI는 안정적 성장 궤도에 오른 상황, 수익화를 지켜보는 단계
- Consumer 대비 Enterprise AI는 서버 비용 우려도 적은 편, 무료 이용자가 없어 수익화 염려가 제한적

주요 Enterprise AI 플레이어: Frontier AI Labs 및 CSP 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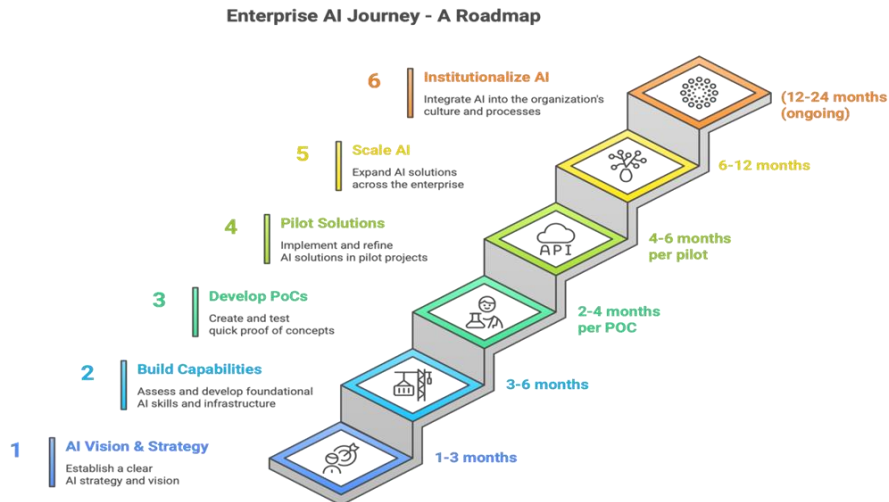
 Azure AI Foundry	 Vertex AI	 Amazon SageMaker	
 C3.ai	 SHAKUDO	 DataRobot	 NVIDIA AI Enterprise
 ChatGPT Enterprise	 Claude For Enterprises	 cohere	
 dataiku	 databricks	 UiPath	 H2O.ai

OpenAI ARR 비중 6월(좌) vs 12월(우)



1. 기술적 한계: 집합 Agent 구동을 위한 토큰당 단가가 비싸고 속도가 느린 편. 컨텍스트 윈도우가 길어질 때 특히 ROI 문제 심각
 2. Data Silo: AI를 도입하고 싶어도 학습시키거나 RAG로 연결할 내부 데이터가 파편화
 3. 조직 및 거버넌스: 기존 업무 프로세스를 바꾸는 것에 대한 실무진의 저항 존재, 거버넌스 이슈 등
 4. 보안 및 인프라 운영 능력 부족 등: 기업 보안 관련 우려, 정량적 ROI 측정 어려움, 인프라 운영 역량 부족, 법적 책임 불명확 등
- OpenAI는 2025년 리포트를 통해 Enterprise AI 도입의 1차 제약이 모델 성능이 아닌 조직 준비도로 이동했다고 결론
 - CES에서도 Enterprise AI 도입의 hurdles을 해결하기 위한 기업 다수 참여

Enterprise AI 도입 과정 도식화



CES 2026: LVCC 내 넓은 공간을 차지했던 Enterprise AI 부문



- CES 2026은 Enterprise AI 도입을 돕는 기업들 위주로 참가, Frontier AI Labs 참여는 제한적
- 부수 내 인터뷰 결과 Enterprise AI 도입 기업들이 대부분 Pilot 고객과 대응 중, 아직 초기 단계
- 대부분의 기업이 SW Customize, 기업의 사전 준비 필요로 도입 허들을 고집음, 이를 대응하기 위한 인력적 한계도 존재
- Pilot 고객과의 대응이 끝나고 성과가 나온 이후에 침투율의 비선형적 증가 예상, 비즈니스 Flywheel 에 자신감
- OpenAI, Anthropic은 API 매출 상승폭에서 해당 초기 구간을 2H25에 지난 것으로 판단, 매출액 성장 지속 가능

핵심 Enterprise AI 참여 기업 정리

AI 성능 개선

Nvidia, AMD, Intel 및 ASIC, NPU 기업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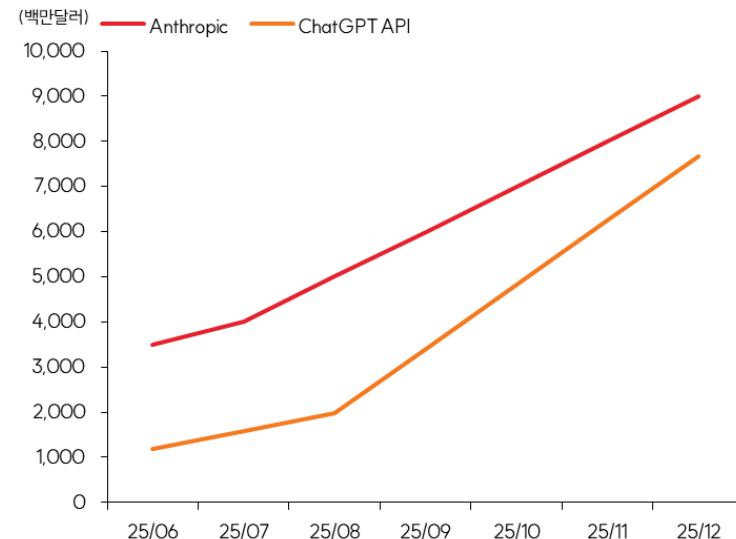
Data Silo, 도메인 통합

Keyence(제조 현장 데이터), Sabre(여행 산업 데이터)
Deep.Fine(산업 현장 데이터), Mercy(의료 데이터) 등

거버넌스

Fujitsu(AI 가드레일), UL Solutions(보안), BI Matrix(노코드 기반 AI 데이터), MAUM AI(온프레미스 LLM)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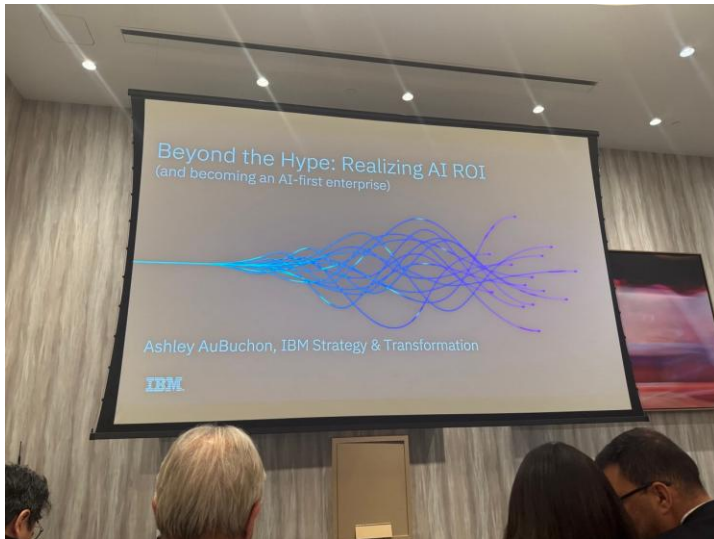
OpenAI, Anthropic API 부문 ARR



Session: IBM 내 AI 도입 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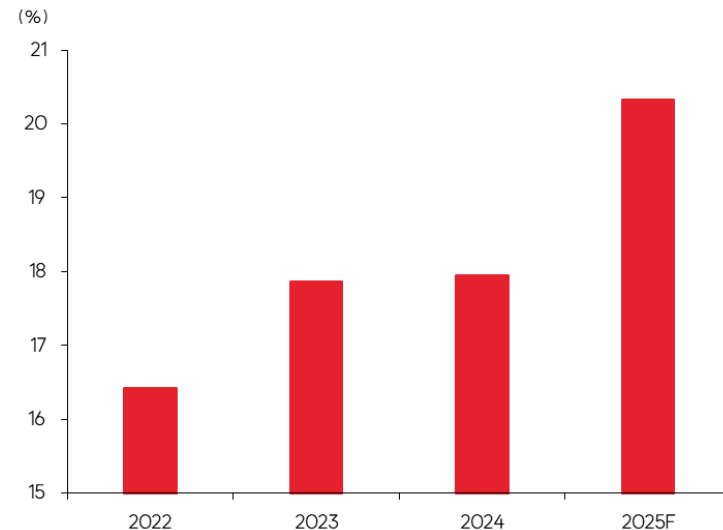
- IBM은 지난 3년간 AI와 자동화를 통해 \$4.5B 규모의 생산성 비용 절감
- 3,500개의 파편화된 앱을 제거 AskHR, AskIT 같은 에이전트 층 구축. HR 운영 예산 40% 절감
- 내부 평가 기준(처리 속도, 업무 처리 인원, 직원 정보, 설문을 통한 AI 톨 만족도) 정립, AI 도입 이후 모두 개선
- 절감 비용을 R&D에 재투입, 정체되었던 매출을 성장세로 돌려놓는 구조 정립 (R&D 비용 매출액 대비 9% → 10% 중반 목표)
- AI 도입이 비용 절감에서 나아가 매출 성장세로 이어진 매우 긍정적인 사례
- AI 도입을 전사 프로젝트로 인식하는 C레벨 결단 필요, 성과 기업이 늘어남에 따라 해당 전략 확산될 것으로 판단

Session: Realizing AI ROI by IBM



자료 : SK증권

IBM 전사 OPM 추이 및 전망



자료 : Bloomberg, SK증권

Session: 제조업 AI 도입 현황

- AI 도입의 성공은 기술이 10%, 인간의 수용과 조직 문화가 90% (반복 강조)
- 제조 기업에 활용되는 AI를 크게 1) 비즈니스 영역 AI 2) R&D AI 3) Operating AI 로 분류
- Back Office를 포함하는 비즈니스 영역이 Gen.AI로 자동화 되는 중, R&D 가속화도 감지
- Operating AI가 나머지 영역 대비 Gen.AI의 침투가 느림, 기존 Machine Learning(ML) 활용이 보편적
- 과거 데이터가 지저분하여 ML 활용이 제한됐던 부분에 Gen.AI 데이터 정리에 사용되는 중. 단기에 가장 유망한 영역
- Operating AI는 AR/VR 기기 등의 디바이스 및 센서가 활용될 여지 큼

Session: Powering Manufacturing Transformation with AI

Speakers

-  Austin Alexander
Xylem
-  Todd Boppell
National Assoc. of Manufacturers
-  Georg Doll
Microsoft
-  Traci Gusher
EY



Operating AI에는 산업용 디바이스 활용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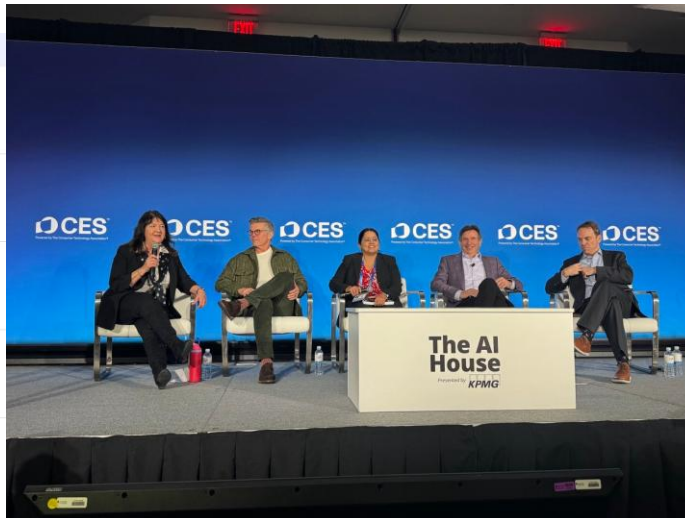
Session: Agent AI 확산 현황

- 2026년은 AI가 단순한 도구를 넘어 '지능형 에이전트'와 인간이 한 팀으로 협업하는 방식이 정착되는 원년
- Microsoft 고객 기업 내 리더 82%가 향후 10~12개월 내 에이전트에 대규모 투자 계획
- 사람들의 준비도가 생각보다 느리고, Agent 활용에 교육이 필요한 상황
- 팀 내 얼리어답터가 수용한 방식을 팀으로 확산시키는 전략 사용 중, 팀 협업과 오케스트레이션 톨 중요
- Harvard Business School은 현재 리더 프로그램에서 모든 학생들에게 직접 Agent 만들어보는 과정 필수
- 향후 기업은 Creator 보다 Orchestrator/Editor와 관련된 역량이 있는 인재를 필요로 할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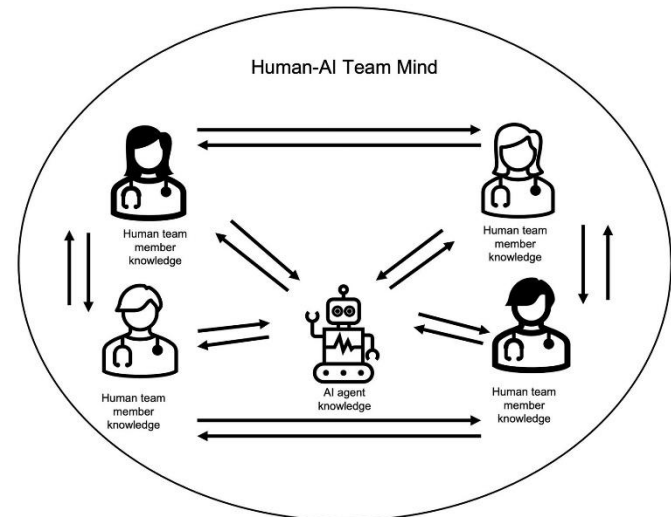
Session: AI and the Workforce: Adaptation, Automation

Speakers

-  Jonathan Aberman
Hupside
-  Matthew Duncan
Microsoft
-  Usha Jagannathan
IEEE SA
-  Bret Kinsella
TELUS Digital / Fuel iX
-  Elizabeth Shea
TreeFork Strategi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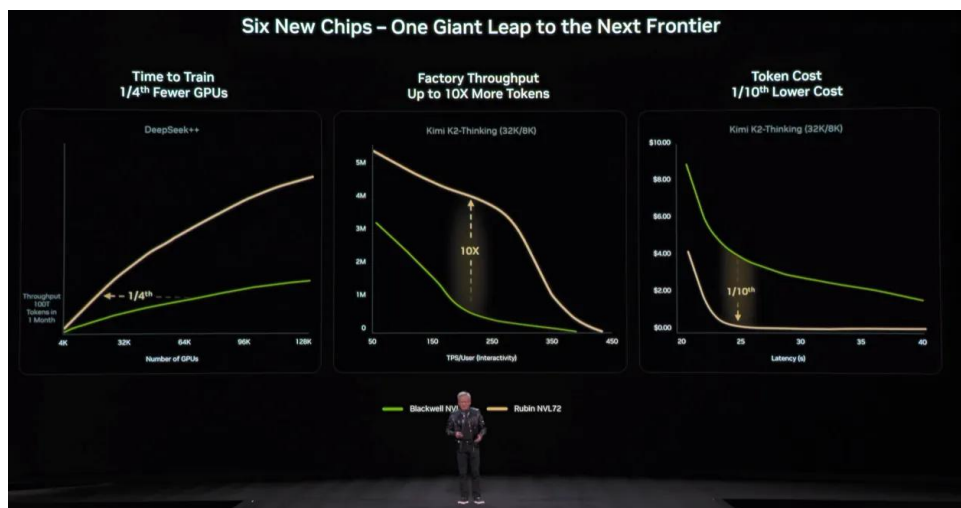


AI Agent Co-operate 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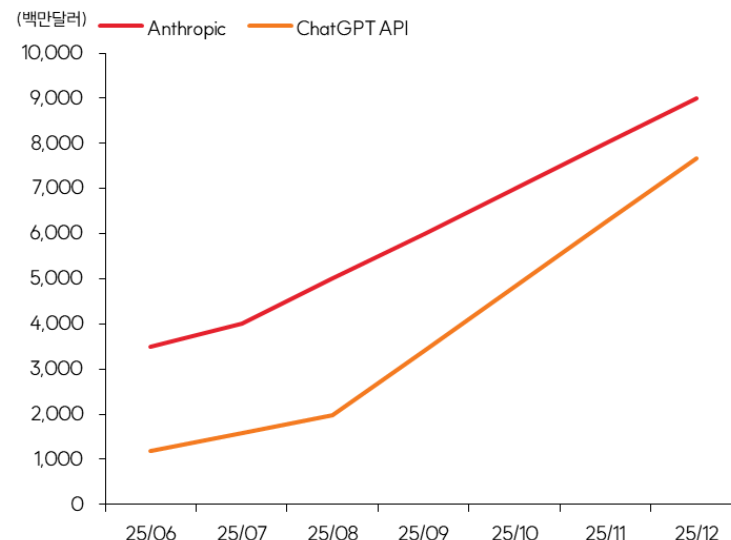
- 2026년 AI 모델 성능은 1) VR200 출시 2) GW 급 DC 도입 3) Blackwell Pre-train 모델 출시로 비약적 증가가 가시권
- CES 2026에서 Data Silo, Governance, 보안 등의 이슈는 해소를 위한 기업들의 빠른 움직임 포착 가능
- Enterprise AI 기업들은 초기 Pilot 고객사 도입에는 물리적 시간 필요하나, 정립 이후 Flywheel 자신감
- 도입 hurdles는 거버넌스, 사회, 문화적인 요소가 많으며 이는 경쟁사 도입으로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으로 판단
- Business 영역 뿐 아니라 제조 영역으로 AI 확대 진행 중, Physical AI 까지 넓어질 TAM 가시권
- OpenAI, CSP 3사를 포함한 Frontier AI 모델사들의 API 매출액 급증 지속 전망

Vera Rubin 도입으로 인해 차세대 모델 Inferencing 비용 급감



자료: Nvidia, SK증권

OpenAI, Anthropic API 부문 AR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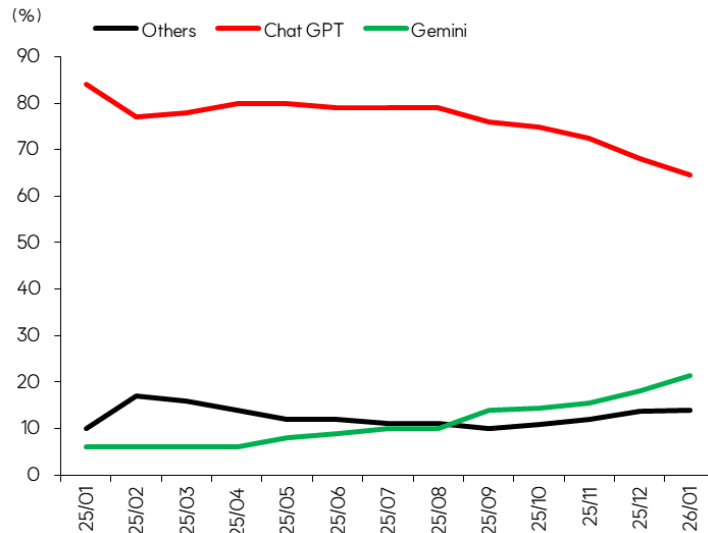
자료: 언론 자료, SK증권 추정

- 현재 OpenAI 관련 우려는 B2C 점유율. 특히 Heavy User가 많은 Web에서 점유율 하락
- 원인은 인프라 시간차로 판단, 1H26 내 Blackwell 기반 Pre-train 차세대 GPT 시리즈 출시로 재역전 가능성 높음
- 1) 작년 GPT-5 출시 이후 API ARR 급성장 추세 2) Microsoft와의 파트너십 3) 오랜 1위 모델 지위로 인한 해자 작용 전망
- 차세대 GPT 모델 출시로 시장은 B2C 관련 우려 해소, API 관련 매출 급증 주목할 것으로 판단

관련 주목 주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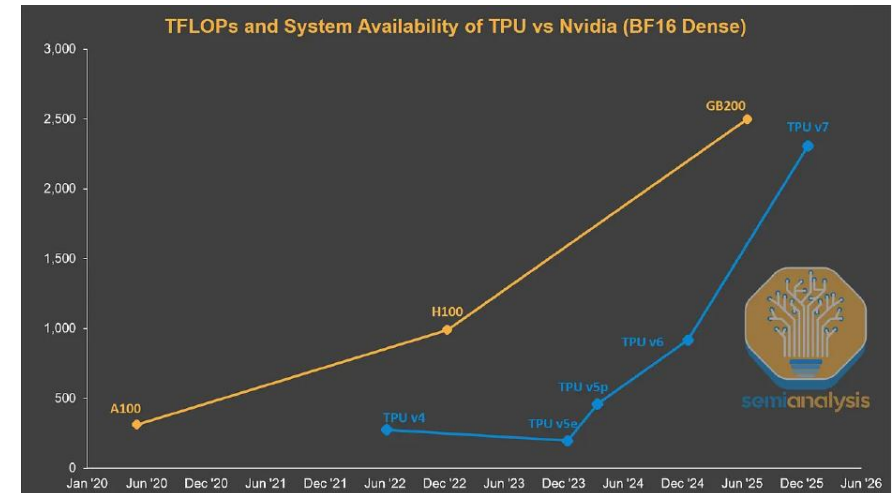
MongoDB(AI 특화 DBMS), Oracle(OpenAI 네오클라우드),
Coreweave(OpenAI 네오클라우드), Nvidia(OpenAI 주력 칩 공급자)

OpenAI Web Traffic 점유율 추이



자료 : 각 사, SK증권

TPU-Nvidia GPU 개발 시점 및 성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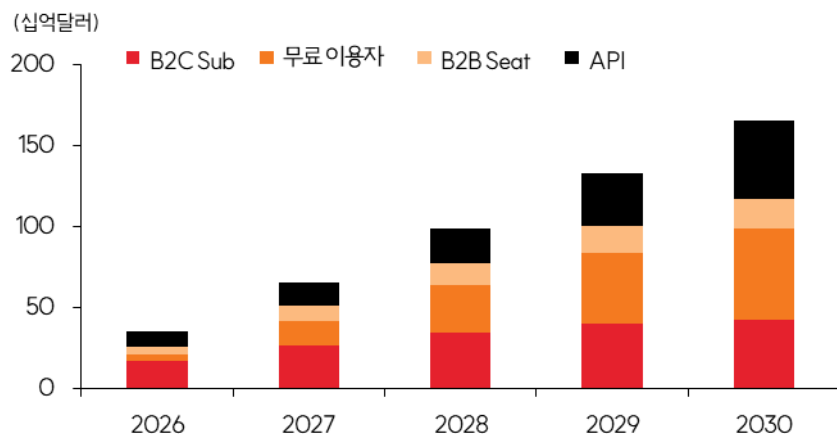


자료 : SK증권

Chapter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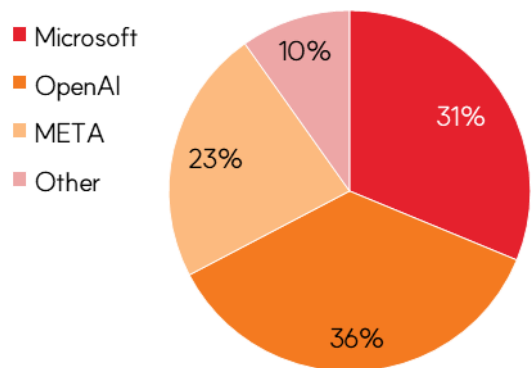
주목 기업 핵심 차트

OpenAI 매출액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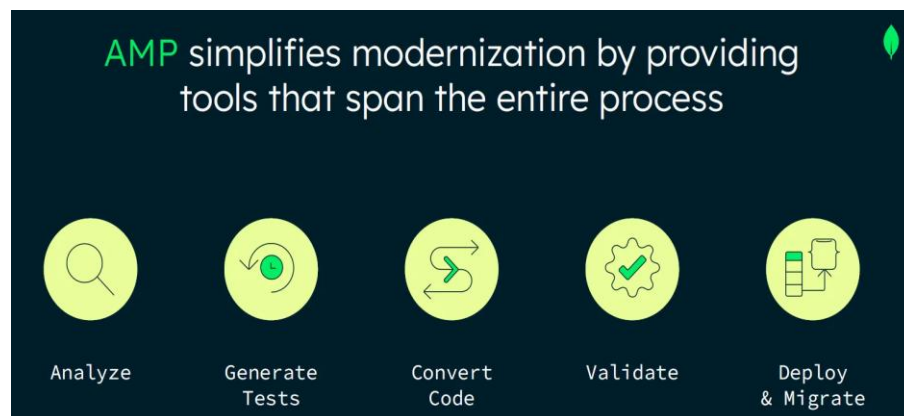
자료 : SK증권 추정

Coreweave 수주잔고 고객사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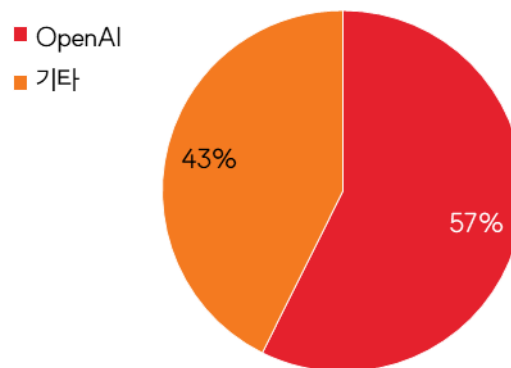
자료 : Coreweave, SK증권 추정

MongoDB, App Modernize Project



자료 : MongoDB, SK증권

Oracle 수주잔고 고객사 비중



자료 : Oracle, SK증권

XR/공간컴퓨팅 & 가전/TV 그리고 중국의 기술 자신감 부각



Spatial Computing(공간 컴퓨팅) 단어의 등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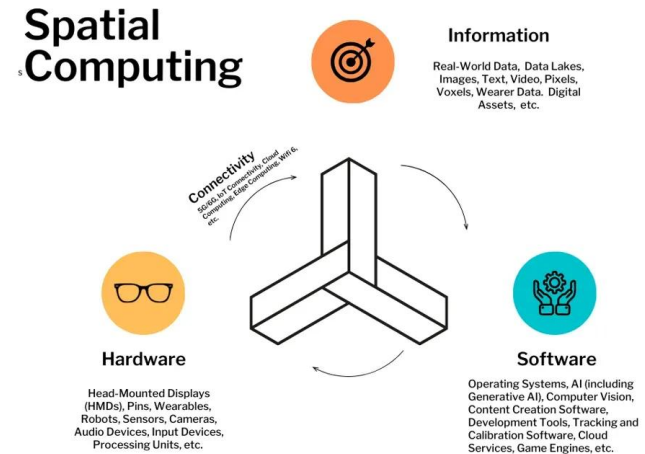
- CES 2026에서는 XR(확장현실) & Spatial Computing(공간 컴퓨팅)이 새로운 Topic으로 신설 (기존에는 VR/MR)
- XR은 기존 '디바이스'를 총칭하는 단어였다면, 공간 컴퓨팅이라는 개념은 **현실 공간 + 디지털 객체 + 행동/업무의 결합**
- 즉, 단순히 새로운 기기의 등장이 아닌, **새로운 형태의 생활 패러다임 변화**를 드러내기 위해 등장한 단어
- 주인공은 '스마트글래스': 일상 속에서 생활 패러다임 변화를 이끌어 내려면 기존 VR, MR기기가 아닌 '글래스' 형태여야 함

CES 2026에서 새롭게 등장한 Topic: XR & Spatial Computing

XR and Spatial Computing

The technologies that transformed gaming are now changing the game in other industries and reshaping the way businesses operate across the globe.

공간 컴퓨팅 개념



‘HMD’ 형태의 기기는 게이밍으로 포지션, ‘안경’ 형태의 기기는 공간 컴퓨팅용 인터페이스 포지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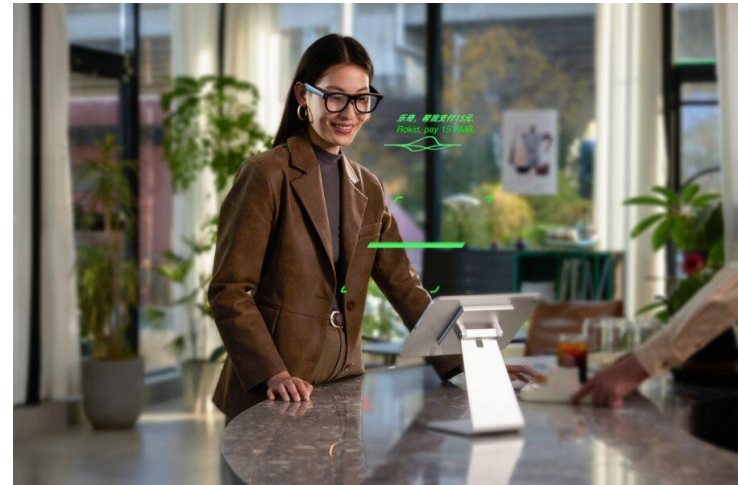
- CES 2026에서 HMD(Head Mount Display)는 철저하게 게이밍 용도로 구분, 입지가 축소됐음
- 공간 컴퓨팅을 구현하는 형태는 ‘안경’ 형태로 집중
- 핵심은 ‘사용 맥락’:
HMD 기기: 하루종일 착용한 상태로 있기 어렵고, 일상 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몰입되기 힘들
안경 기기: 자연스럽게 일상에 개입하기 좋은 형태, 생산성·업무 효율 향상 가능
- 결국 기업/소비자 모두 ‘안경’ 형태를 선택하기 시작함

XR, 게이밍 존에서 볼 수 있는 HMD 기기는 대부분 게이밍용 기기



자료 : 산업 자료, SK증권

일상 생활 속에서 활용하는 스마트글래스: Rokid의 Alipay 사용



자료 : Rokid, SK증권

실제로 점차 수요가 증가중인 스마트글래스

- Meta의 'Ray ban Display' 제품 글로벌 출시 연기: 미국 내 수요 강세, 부품 공급 부족으로 미국 내 주문 처리 우선시
- 중국의 판매 증가: 25년 YoY +121%, 26년 YoY +78% 예상(IDC 추정)
- Meta와 여러 중국 업체들의 스마트글래스 판매량 전년 대비 3~5배 상승 중(사피엔반도체 3Q25 실적발표 언급)

Meta Ray ban Display 글로벌 출시 연기 공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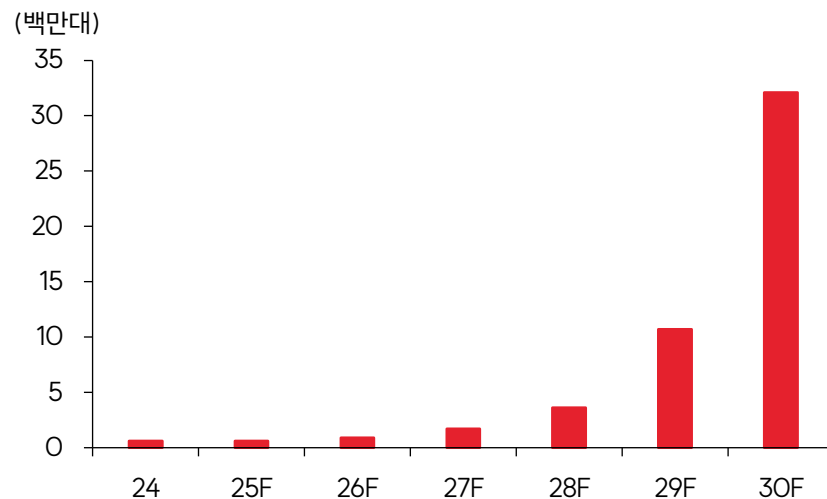
Meta Ray-Ban Display: International Update

[Meta Ray-Ban Display](#) is a first-of-its-kind product with extremely limited inventory. Since launching last fall, we've seen an overwhelming amount of interest, and as a result, product waitlists now extend well into 2026.

Because of this unprecedented demand and limited inventory, we've decided to pause our planned international expansion to the UK, France, Italy, and Canada, which was originally scheduled for early 2026. We'll continue to focus on fulfilling orders in the US while we re-evaluate our approach to international availability.

자료 : Meta, SK증권

디스플레이 탑재(AR) 스마트글래스 출하량 전망



자료 : Trendforce, SK증권

2026년은 스마트글래스 보급 본격화의 원년

- **Post Smartphone:** 빅테크 업체들은 스마트폰 다음 기기로 스마트글래스를 낙점, 26년부터 진입 본격화 예상
- Google, Apple, Amazon, Samsung 등 여러 빅테크 업체가 시장 진입 준비 중인 것으로 파악
- Meta 및 중국 업체들의 사전 출시 및 선점 효과 지속될 것으로 예상
- 하드웨어 완성도는 이미 높은 수준까지 구현 가능, 빅테크 업체들이 진입하기 충분한 환경이라 판단

업체별 스마트글래스 출시 시기 정리

기업명	예상 시기	내용
Meta	3Q25	디스플레이 탑재 AI + AR 글래스 Rayban Meta Display 공개
Google	2026	25년 Android XR 글래스 시제품 공개, 26년 출시 예상
Samsung	2026	프로젝트 'HAEAN(해안)', 26년 공개 예상
Apple	2026~7	디스플레이가 없는 AI 글래스 출시 예정(언론)
	2027	디스플레이 탑재한 AI+AR글래스 출시 목표(언론)
Amazon	2025	배송기사용 AR 글래스 공개
	2026~7	AI+AR글래스 'Jayhawk' 개발 중, 26~27년 출시 예상
Baidu	4Q25	스마트글래스 'Xiaodu AI Glasses' 공개
Xiaomi	3Q25	스마트글래스 'Xiaomi AI Glasses' 출시
Alibaba	4Q25	디스플레이 탑재한 AI+AR글래스 'Quark AI Glasses' 공개
HTC	4Q25	디스플레이 탑재한 AI+AR글래스 'Vive Eagle' 공개

자료 : 언론 종합, SK증권

CES 2026에서 목격한 스마트글래스

- XR/공간컴퓨팅 부문 신설, CES 혁신상도 스마트글래스 업체들이 다수 수상
- 수많은 인파가 스마트글래스 체험을 위해 몰림, 스마트글래스 조형물 등 뜨거운 관심 증명
- CES 2025와의 차이점은 시제품이 아닌 출시된 제품 위주 전시: 하드웨어의 완성도, 발전 속도가 인상적
- AI 탑재가 핵심: 모든 업체들이 AI 탑재를 강조하며 AI 관련 기능을 선보임(통역, 네비게이션, AI 대화, 프롬프트 등)

CES 혁신상: Mojie Technology의 Full color AR+AI Glass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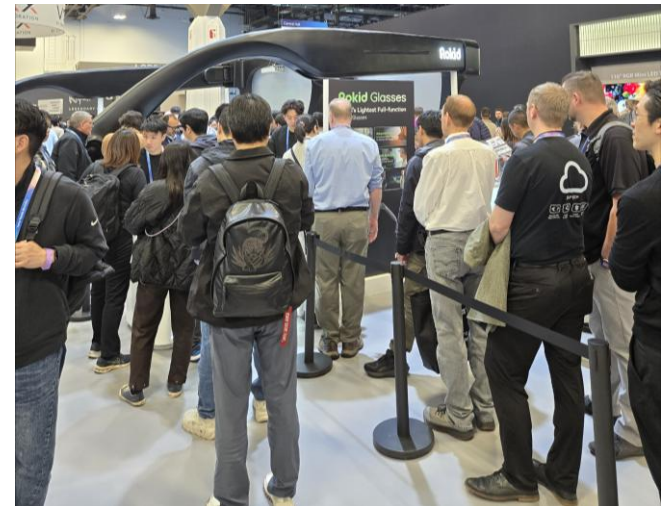


Zhuhai Mojie Technology Co., Ltd.

World's Lightest Full-Feature Colorful AR+AI Glasses

자료 : CES, SK증권

Rokid AI Glasses 체험 대기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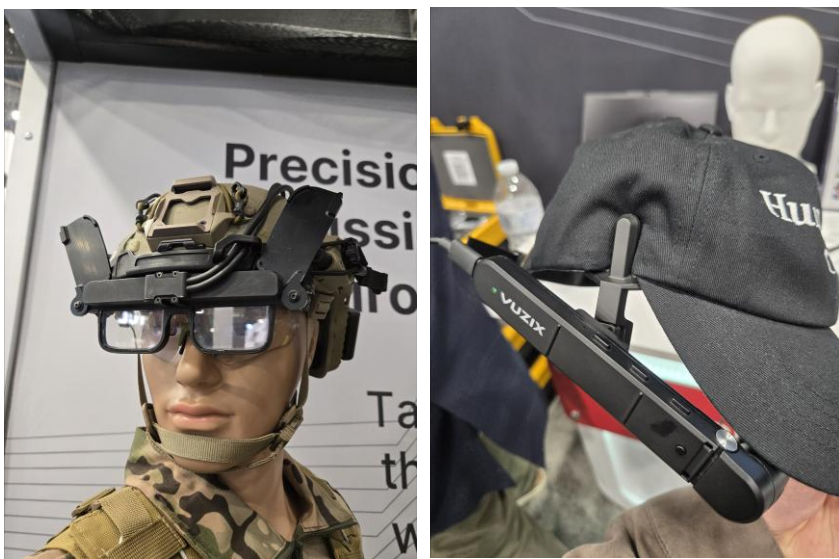


자료 : SK증권

높아지는 하드웨어 완성도

- 무게 개선 중: 36~49g 초경량 제품 다수 전시, 디자인도 많은 부분 개선
- 디스플레이는 Micro-LED(LEDoS), LCoS가 대부분 차지(OLEDoS는 XREAL만 사용)
- 카메라와 스피커를 제외한 정보 표시용 스마트글래스도 등장: 배터리 효율 증대로 최대 24시간 사용 가능
- 산업 및 군용 스마트글래스 전시: B2C외 B2B로의 확장 가능성 염두

Vuzix의 군용/산업용 AR기기



자료 : SK증권

카메라와 스피커를 제외, 무게 36g의 Even Realities 'G2'



자료 : Even Realities, SK증권

TCL의 Rayneo X3 Pro



자료 : SK증권

- 풀컬러 3칩 RGB Micro-LED 탑재(중국 JBD 제품)
- 회절 도파관(Diffractive Waveguide) 탑재
- 무게 80g, 배터리 245mAh
- 카메라, 스피커, 마이크, GPT-5 내장
- 가격 \$1,250

Rokid의 'Rokid Glasses'



자료 : SK증권

- 단색(Monochrome, 녹색) Micro-LED 탑재
- 회절 도파관(Diffractive Waveguide) 탑재
- 무게 49g, 배터리 210mAh
- 카메라, 스피커, 마이크, GPT-5 내장
- 가격 \$599

Mojie의 'Full-Feature Colorful AR+AI Glasses'



자료 : SK증권

- 풀컬러 LCoS 탑재
- 회절 도파관(Diffractive Waveguide) 탑재
- 무게 38g, 배터리 245mAh
- 카메라, 스피커, 마이크, 내장 (AI모델 불분명)
- 가격 미공개

Even Realities의 'G2'



자료 : engadget, SK증권

- 단색(Monochrome, 녹색) Micro-LED 탑재
- 회절 도파관(Diffractive Waveguide) 탑재
- 무게 36g, 배터리 192mAh(24시간 지속)
- 카메라 없음, 스피커 없음
- 가격 \$599

XREAL의 'One Pro'



자료 : SK증권

- OLEDoS 패널 탑재 (Sony 공급)
- Birdbath Optics 사용
- 87g, 외부 배터리
- 카메라 없음
- 가격 \$649

Qualcomm 부스에 전시된 XR기기들



자료 : SK증권

- Qualcomm은 대부분의 스마트글래스에 AP납품
- Meta, Snap, Rokid, TCL Rayneo, Baidu, Xiaomi, Galaxy XR등 탑재 제품 전시

CES 2026의 스마트글래스는 사실상 중국이 장악

- CES 2026에서 스마트글래스 메인 전시는 TCL, Rokid, XREAL, Even Realities 등 중국 업체들이 대부분 차지
- 현재까지는 중국 내수 중심의 수요가 대부분이나, 멀티 AI모델 지원 등을 통해 글로벌 시장으로 확장 중
- CES 2026에는 중국 스마트글래스 업체 27개 참가했으며, XR&공간컴퓨팅 분야에서 최다 참가 기록
- 스마트글래스 글로벌 전체 판매의 약 30%가 중국에서 이뤄지고 있음

XREAL 부스: 체험까지 20분 이상 소요



자료: SK증권

Rokid 부스 앞 조형물



자료: SK증권

중국은 국가 정책 지원 및 밸류체인 완결성으로 스마트글래스 하드웨어/제조 점령

- 중국은 국책 로드맵을 규정하고(22~26년간 3,500억 위안 산업 규모 달성, AR/VR기기 2,500만대 출하 목표), AR글래스 구매에 보조금 지급(이구환신 보조금에 스마트글래스 포함) 및 핵심 기술 개발을 지원하고 있음
- 개별 기업의 투자도 활발하게 진행중: Rokid, Xreal, INMO, Viture 등 중국 내 주요 AR글래스 세트 업체들은 각각 24년 연간 1억 위안 이상의 투자를 유치했고, 제조 업체인 Goertek 은 1억 달러를 투자해 LEDoS 업체인 Plessey를 인수하는 등 기술 확보를 위한 M&A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음
- 하드웨어의 완결성: 대부분의 핵심 부품 조달이 국내에서 가능, ODM 및 주요 부품 공급망 확보로 제조 클러스터 역할 수행 중

밸류체인의 완결성

	AI 모델	OS, 플랫폼	OEM	ODM	SoC	마이크로 디스플레이	광학계
미국	Meta Google Amazon	Meta Google Apple Amazon	Meta Google Apple Amazon Snap		Qualcomm Apple	Syndiant Kopin Avegant	Corning AMAT Wave Optics Coherent DigiLens
중국	Alibaba Baidu	Alibaba Xiaomi Huawei Rokid	Alibaba Xiaomi Huawei Rokid TCL, Xreal Lenovo	Goertek Luxshare Lens Tech		JBD Omivision BOE SeeYa Goertek Crystal Optech	Sunny Optical O-Film Asia Optical Goertek Lens Tech Crystal Optech
대만			HTC	Foxconn Pegatron Quanta	Mediatek	Himax PlayNitride AUO Ennostar	Quanta AUO Young Optics GESO Largan
한국			삼성전자		삼성전자	사피엔반도체 라운텍 삼성디스플레이	RetinAR(비상장)

자료 : SK증권

중국은 국가 정책 지원 및 밸류체인 완결성으로 스마트글래스 하드웨어/제조 점령

RayBan Meta Gen2 밸류체인 분석 : 대부분 중국 업체

담당	국가	업체명
OEM	이탈리아	EssilorLuxottica
AP	미국	Qualcomm
Memory	중국	Biwin Storage
MEMS 실리콘 마이크	중국	Goertek Microelectronics
인지	중국	Chagying Precision
카메라모듈	중국	Sunny Optical
CIS	일본	SONY
안경 배터리	중국	Desay Battery
충전 케이스 배터리	중국	Feimaocu Energy
PCBA 솔루션	중국	Longcheer Technology

자료 : SK증권

Alibaba Quark Vision 밸류체인 분석 : 대부분 중국 업체

담당	국가	업체
ODM	중국	Luxshare Precision
Micro LED	중국	Huacan Optoelectronics
AP	미국	Qualcomm
음향	중국	Jiahe Intelligence
회절 도파관	중국	Crystal Optech
카메라	중국	Lijing Innovation
렌즈	중국	Lens Technology

자료 : SK증권

Xiaomi AI Glasses 밸류체인 분석: 대부분 중국 업체

담당	국가	업체명
ODM	중국	Goretek
AP	미국	Qualcomm
카메라 렌즈	중국	Sunny Optical
카메라 모듈	중국	O-Flim
스피커	중국	Goretek
마이크	중국	Goretek
CIS	일본	Sony

자료 : SK증권

최종 승자는 Google이 될 가능성이 높음

- Google은 최근 XR Edition 행사에서 스마트글래스 사업 진입 공식화
- 하드웨어를 중국/대만의 OEM/ODM사(ex. Goertek 등)가 빠르게 만들 수 있다면, H/W격차보다는 S/W가 경쟁력의 핵심
- Google은 Android 생태계를 활용한 개발자 툴킷을 배포. 개발자 생태계가 거대해지면 콘텐츠 확대에 이어짐
- Gemini의 멀티모달 성능 우위 및 구글 맵, Youtube등 First Party Data를 활용한 스마트글래스 생태계 구축에 매우 유리
- Meta의 단점인 LLaMA의 성능 열위, 좁은 생태계의 상위 호환으로,
아직 H/W는 Meta가 우위이나, 스마트폰과 같이 Samsung 및 타 OEM사와 협력시 H/W 성능도 빠르게 좁혀질 것으로 예상

CES 2026에서 새롭게 선보이는 Topic: XR & Spatial Computing

Google XR Edition 공개 제품 라인업

AR 디바이스 개발 현황



보유 AI 역량



디바이스 제조 능력



기존 사업 시너지



미국의 견제가 핵심

- XR, 스마트글래스는 산업/군사용으로도 사용되는 첨단산업
- 최근 미 국방부는 Meta에 밸류체인 내 중국의 높은 부분을 지적, 밸류체인 탈중국화를 강요하고 있음
- 이는 Meta뿐 아니라, 스마트글래스 산업을 이끌어갈 Google, Apple, Amazon에게도 해당될 수 있음
- 현재 스마트글래스 주요 부품은 대부분 중국 업체가 담당. 해당 국면에서 국내 업체들의 수혜 가능성이 부각됨

국내 스마트글래스 관련 밸류체인

분류	기업명	내용
기존 세트 공유 부품군 업체		
FPCB	비에이치	삼성 프로젝트 해안(Hae-an) 협업, 타 빅테크 업체와 협업 중
	인터플렉스	삼성 프로젝트 해안(Hae-an) 협업, 마이크로소프트 홀로렌즈에 납품 이력
	뉴프렉스	Meta향 카메라 모듈용 FPCB 납품, 차세대 모델 개발 협력 중
SMT	디케이티	Meta향 5G 안테나 공급 이력, FPCB 부품 실장 확대에 따라 역할 확대
PMIC	DB하이텍	26~27년부터 Meta와 공급계약
카메라	LG이노텍	Apple Vision Pro용 3D Sensing 모듈 공급
	나무가	3D ToF 전문 업체
MLCC	삼성전기	MLCC 탑재 확대 수혜
스마트글래스 전용 부품군 업체		
LEDoS	사피엔반도체	LEDoS용 백플레인 팹리스 업체, JBD, 메타 및 빅테크 업체와 협업
LCoS	라운텍	LCoS용 백플레인, 구동칩 팹리스 업체
OLEDoS	선익시스템	OLEDoS용 증착기 공급

자료 : 산업 자료, SK증권

안두릴 군용 XR 헤드셋 '이글아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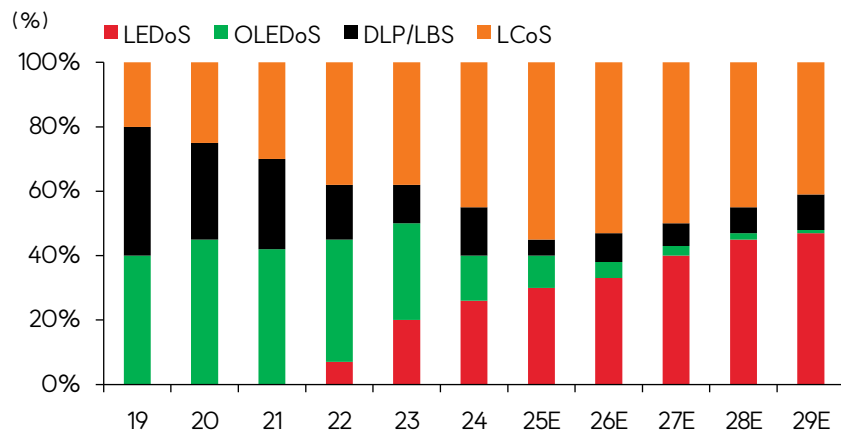


자료 : 안두릴, SK증권

스마트글래스 산업 성장은 마이크로 디스플레이 성장을 견인

- 현재 스마트글래스에는 단색(Monochrome) LEDoS와 LCoS가 주류로 사용
- LEDoS는 풀컬러 구현이 어려우나, 다수의 업체 진입으로 빠른 속도로 개선 중. 27년 풀컬러 단일칩 RGB LEDoS 출시 예상
- LCoS는 풀컬러 구현 및 부품단가 고려 시 가장 현실적인 대안. Meta가 사용 중이며, 타 빅테크 업체도 진입 시 사용 가능성 多
- OLEDoS는 스마트글래스에는 제한적이나, 콘텐츠 소비에 초점이 맞춰진 XR디바이스에는 필수적으로 탑재
- 국내 업체 관련 업체로는 사피엔반도체(LEDoS), 라온텍(LCoS)

스마트글래스용 마이크로디스플레이 침투율 추이 및 전망



자료 : Yole, SK증권

스마트글래스 마이크로 디스플레이 종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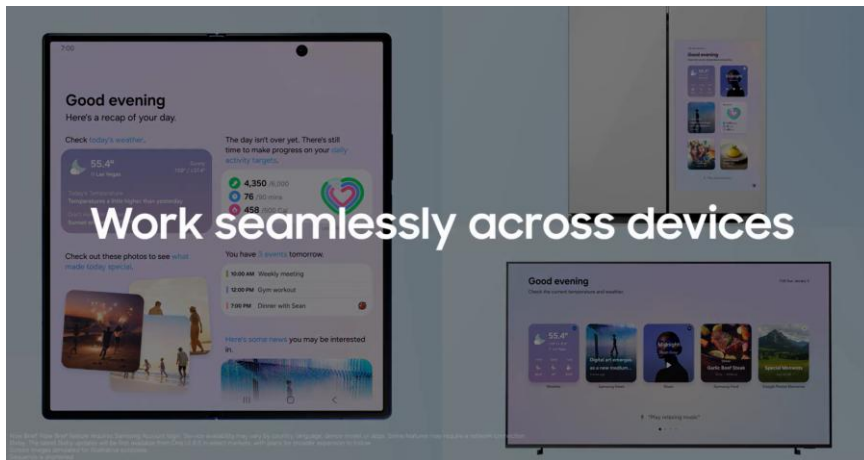
LCoS	OLEDoS	LEDoS
반사(외부광원)	자체 발광	자체 발광
실리콘기판 + 액정	실리콘기판 + 발광 유기층	실리콘기판 + Micro LED
★★★★★	★★★	★
★★	★★★★	★★★★
★★★	★	★★★★★
★	★★★★	★★★★★
★★★★	★★★★	★★★★★
★★	★★★★	★★★★★
1080P ~ 2K	1080P ~ 2K	2K ~ 4K
★★★★★	★★★★	★★★★★
★★★★★	★★	★★★★★
Low (\$50~)	High (\$200~)	Very High (\$1000~)(풀컬러 기준)

자료 : Trendforce, 산업 자료, SK증권

참가 업체들의 메시지: 가전/TV를 통해 통합된 AI 경험 제공 & AI 기능 시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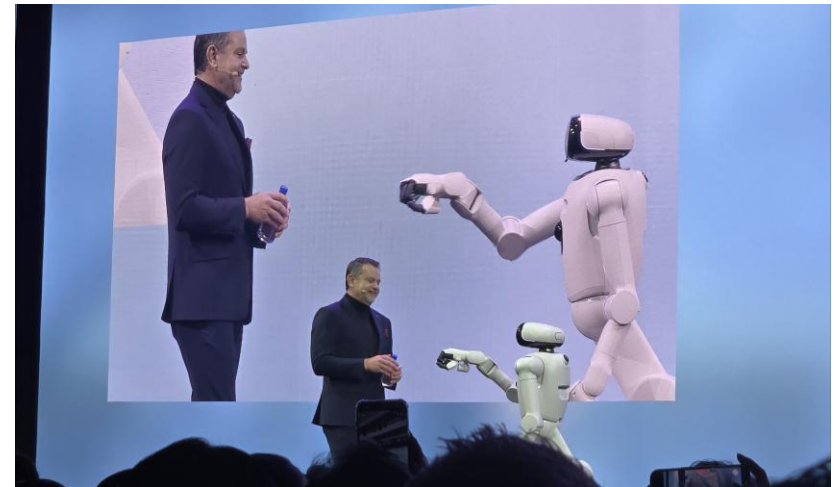
- 집이라는 공간 전체를 하나의 AI 시스템으로 정의(통합화)
- 삼성의 Wynn전시관 이동 > 통합화된 AI 시스템을 보여주기 위한 조치
- CES 2025에서 “연결(Connect)의 확장”에 초점을 맞췄다면, CES 2026은 “기능 구현”에 초점
- 단순 입력에 대한 수동적인 반응이 아닌 사용자 교감, 맥락 인지를 통한 선제적 제시(Agency) 역할 강조

삼성전자, 데이터 통합, AI 동반자, 기기간 연결 강조



자료 : 삼성전자, SK증권

LG전자, Agent 역할 수행하는 로봇 '클로이드' 공개



자료 : LG전자, SK증권

삼성전자: Companion to AI Living



- 1) One Samsung: 데이터 통합 전략
TV, 가전, 모바일, 웨어러블을 하나의 데이터
행동 흐름으로 통합
- 2) 전시 방식 변경: 통합성을 보여주기 위해
Wynn에 단독 전시관 오픈
- 3) AI Companion: 삶 전체 동반자로 포지셔닝

LG전자: Affectionate Intelligence



- 1) 공간 전체를 연결하는 플랫폼 기업임을 자처
- 2) 가전/TV/로봇/서비스와 ThinQ/WebOS를
묶는 플랫폼 전략
- 3) Zero Labor: 시간/노동 절약을 KPI로 내세움
- 4) 로봇을 '홈 특화 에이전트'로 포지셔닝
(클로이드 공개)

새로운 내용 부족, 신선하지 않았다

- CES 2026 의 핵심 주제가 "Show UP(증명)"인 만큼, 구현 가능한 기능 위주 설명
 > 부스에서 보이는 전시가 '현실적인 수준' 까지 내려왔음. 새로움 부족
- CES 2025 대비 구체화된 기능을 선보이긴 했으나, CES 2025에서 언급한 내용을 구체화 한 것에 불과
- 킬러 콘텐츠 부재, 수요 증가는 여전히 의문: 가전에 AI 기능이 추가된 것일 뿐, 그 가전이 필요해지진 않았다
- 아직까지 AI 도입은 소비자의 삶을 직접적으로 개선하기보다, 업체들의 수익성 개선(광고 등) 및 Lock-in효과 등에 초점
 > 결국 핵심 기능을 직접 총괄하고 수행하는 주체인 'Home Agency'의 상용화가 필요 (로봇 등)

TV: AI와 대화, AI를 통한 업스케일링, 볼륨 및 음향 조절 기능



자료 : 삼성전자, SK증권

냉장고: AI모델 탑재로 냉장고 속 재료로 레시피 제공 및 AI 대화 기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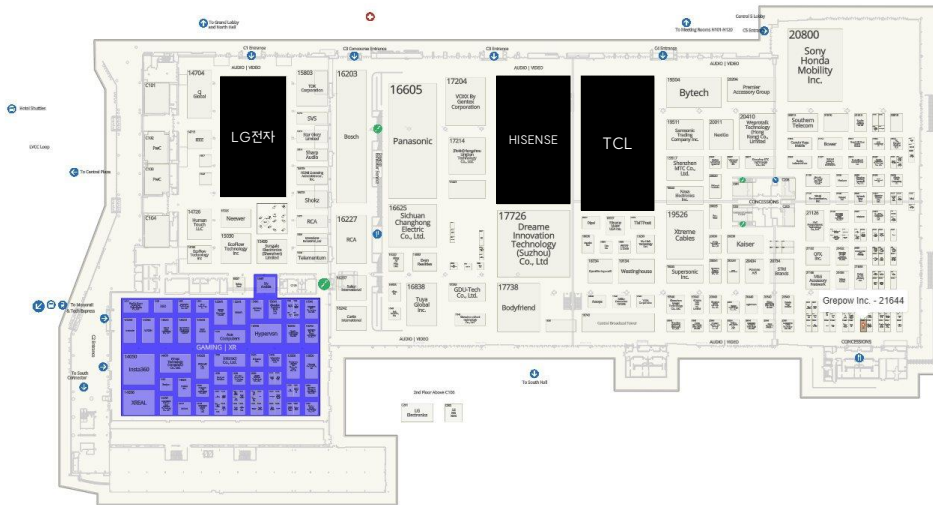


자료 : 삼성전자, SK증권

중국 가전 업체들의 메인 전시 공습, 중국과 경쟁이 점차 치열해지고 있는 중

- 중국 가전 업체가 메인(Central) 전시장 차지: 삼성은 Wynn에 별도 부스로 이동, 기존 삼성 자리에 중국 TCL이 대체
- 한국 추격 전략 본격화: 1) 부스 크기로 영향력 과시, 2) 한국 가전 업체와 메시지 동일하게 전달, 3) 새로운 어플리케이션(스마트 글래스 등)으로 차별점 부각 전략
- 중국 업체들의 기술 자신감이 부각: 과거 전시 모델에서 결함 다수 발견되었으나, 올해는 한국 업체들과 유사한 수준까지 구현
- 과거 가격만을 앞세웠다면, 이제는 기술력 기반 가성비 프리미엄 제품임을 공표
 > 성능, 마감, 디자인, AI기능까지 품질 대거 업그레이드

Central Hall 배치도: 메인 홀 차지, LG전자보다 큰 부스를 과시



자료 : CES, SK증권

TCL, Hisense 부스 전시: 삼성 전시와 구성과 강조 내용이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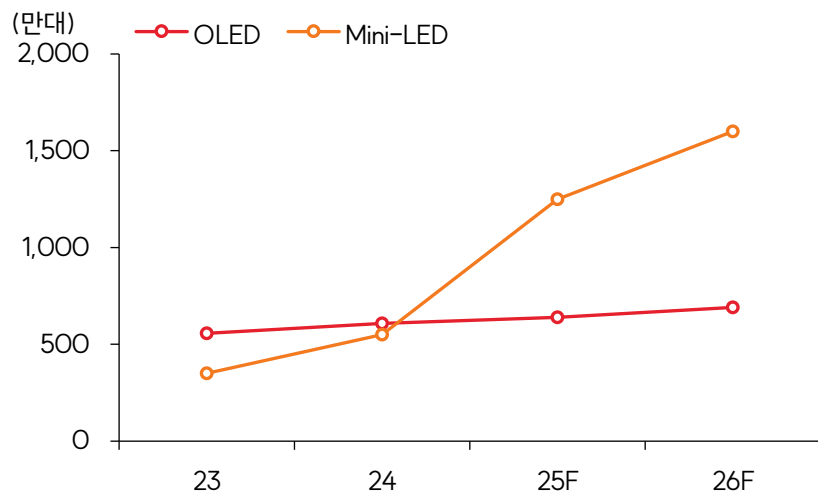


자료 : SK증권

TV의 차별화가 어려워지고 있다

- 한국은 OLED TV vs 중국은 Mini-LED TV가 메인, 가격적인 메리트는 OLED TV < Mini-LED TV
- 대화면 중심 Mini-LED의 판매가 빠르게 확대 중(TCL, 하이센스 등 중국 4개 업체가 글로벌 Mini LED TV 90% 이상 점유)
- 글로벌 TV용 LCD패널은 약 80% 중국에서 생산(한국은 0%), 원가 경쟁력 기반 빠른 침투 중
- AI기능도 아직까지 근소한 차이로 국내 업체가 앞서지만, 중국 업체도 대부분 구현 가능
- Micro LED TV도 한국 업체 대비 큰 TV를 전시

OLED TV vs Mini-LED 판매량 추이 및 전망



자료 : 산업 자료, SK증권

OLED TV 55인치 vs Mini-LED TV 65인치 가격 비교



LG OLED TV 55인치 OLE
D55B5KNA
1,737,000원  무료



Hisense 4K ULED Mini LED
스마트TV, 165cm(65인치),
969,000 원

자료 : 다나와, SK증권

Chapter 3

중국의 역습(3): 디스플레이 경쟁력?

LG전자의 OLED Wallpaper TV



자료 : LG전자, SK증권

Hisense의 Mini-LED TV



자료 : CES, SK증권

삼성전자의 Micro LED TV (130인치)



자료 : CES, SK증권

TCL의 Micro LED TV (163인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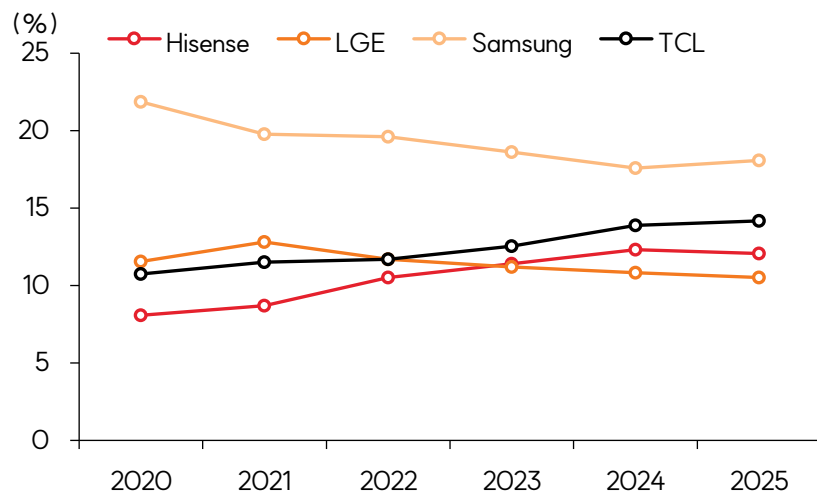


자료 : CES, SK증권

과거 한국의 모습이 보이는 중국 TV 산업

- 글로벌 시장에서 중국 TV업체(Hisense, TCL 등) 점유율 상승 중
- 중국 기업들의 기술 자신감 + 원가 경쟁력을 바탕으로 공격적인 마케팅으로 이어지고 있음
- TCL은 올림픽, FLC / Hisense는 월드컵 공식 후원사로 등록
- 과거 LG, 삼성이 스포츠 마케팅을 통해 영향력을 넓혔던 것과 동일한 모습

글로벌 TV 점유율 추이



자료 : 산업 자료, SK증권

중국 가전/TV 업체들의 스포츠 이벤트 후원



자료 : Hisense, 언론 자료, SK증권

가전/TV의 통합화를 통한 전체적인 브랜드 가치 향상 필요

- 개별 가전의 성능과 가격으로 중국 업체와 경쟁을 지속하기 어렵다고 판단
- 가전은 “하드웨어(가전) + OS(플랫폼) + AI” 풀스택 기업 경쟁으로 진입
- 통합화를 통해 AI HOME 구축을 통한 소비자 경험 제공, Lock-in 효과 제공이 급선무
- 단순히 Multi AI 모델 제공(Gemini, ChatGPT 등)이 아닌, 자사 AI와 통합한 AI Agency의 완성도가 차별화 포인트가 될 것
(ex. 삼성 비스포크의 Gemini 도입, Bixby와의 효율적인 연동 필요)
- AI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오케스트레이션(Orchestration)’ 도 핵심: 구글, 아마존 등 AI 업체와 협업 강조
 - 통합화, AI 오케스트레이션은 한국 업체들이 지속 Development 해온 영역, 여전히 강점이 있다 판단
 - 이제 가전은 단순히 개별 기기의 성능이 아닌 통합 성능, 즉 AI Home의 성능이 경쟁력이 될것

The end

